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4, 627 - 642

## 정신장애인의 애착과 결혼만족도

정민철  
성신여자대학교

김용희<sup>†</sup>  
광주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9명, 불안장애 12명, 알콜의존 1명, 양극성장애 1명, 망상장애 1명, 정신분열증 1명으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25명과 정상인 38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장애유무에 따른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상인의 경우 친밀애착에서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자녀 양육갈등에서 상관이 나타났으며, 불안애착에서는 전반적 불만족, 자녀불만족, 자녀 양육갈등에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정신장애인은 친밀애착에서 전반적인 불만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애유무에 따른 애착수준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불안애착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애착, 친밀애착은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인에서 낮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는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인의 전반적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불만족, 성적불만족, 자녀양육갈등척도가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서적 의사소통불만족, 경제적 갈등 및 자녀 불만족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불만족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만족과 관련하여 기존에 강조되어왔던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입증할 뿐 아니라 이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차원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결혼만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어 : 애착, 결혼만족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용희, (506-713)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165번지 광주여자대학교, 전화 : 062)950-3677, E-mail : yngkim9@hanmail.net

애착은 가족 관계의 중요한 기본적 요소로서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애착이론의 시조인 볼비에 따르면, 초기 애착의 영향은 매우 지속적이어서 성인기의 심리적 건강 뿐만 아니라 결혼 만족도나 사회성 같은 개인의 친밀한 관계 및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Ainsworth, 1969).

성인애착이란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이다 (Berman & Spring, 1994). 아동기의 애착과 차이점은 아동기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양육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성인기에는 애착을 추구하는 대상과 애착 대상 간에 보살핌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Feeney, 1999).

애착의 개념을 부부관계에 시도한 Parkes (1972)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 보이는 쇼크와 고통스러움은 마치 아이가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와 유사한 분리 저항이나 분리 불안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애착 개념을 애인이나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 적용한 Hazan과 Shaver(1987)는 안정애착의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Kobak & Hazan, 1991). Bartholomew(1990)는 애착의 작동모델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기 애착 유형은 결혼 및 가족발달과 관련되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하며,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은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의 친밀한 관계유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1999)는 성인기 부부의 애착 유형과 각각의 비율은 안정유형이 54.6%, 불안-양가유형이 25.1%, 회피유형이 20.3% 순이었으며, 부부의 애착유형별 결혼적응을 분석한 결과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안-양가유형, 회피유형의 순이었다. 전효정(1996)의 연구에서도 결혼생활이 애착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혼생활의 적응수준을 예측하는데 애착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안정애착 부부는 불안애착 부부보다 더 건전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Besharat, 2003; Dickstein, Seifer, Albus & Magee, 2004; Kobak & Hazan, 1991).

부부의 애착유형 중, 아내나 남편의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도 있는데,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일 때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남편이 안정유형이고 부인이 불안-양가유형일 때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정유형일 때는 결혼적응이 중간정도로 나왔다. 반면, 부부가 서로 회피유형일 때가 가장 결혼적응 점수가 낮고, 부부가 모두 불안-양가일 때가 그 다음으로 낮았다(Senchak & Leonard, 1992). 결과적으로 성인애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가장 친밀한 대상은 바로 배우자이므로 결혼생활에서 애착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적응은 애착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일반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부정적 자아상, 타인에 대한 불신, 예민함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이들의 주호소가 친밀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Whisman, 1999; 장문선, 김영환, 2003; 이훈진, 2004; Troisi, Massaroni &

Cuzzolaro, 2005), 정신장애인에서 안정애착보다 불안정 애착유형이 유의미하게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이훈진, 2004; Troisi et al., 2005).

정신장애인의 애착유형에 관해 살펴보면, 공황장애에서 불안애착이 많았으며, 피해망상환자는 친밀애착이 적고 불안애착이 많았다(Marcaurelle, Belanger, Marchand, Katerelos & Mainguy, 2005). 우울증의 경우도 의존애착 및 친밀 애착경향이 낮고 불안애착은 높았다(이훈진, 2004; 김은정, 권정혜, 1998). Troisi 등(2005)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 여성 환자에서 불안애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불안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친밀한 애착 대상인 부모, 배우자, 자녀와 같은 원가족에서의 갈등이 크고, 이들이 애착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손덕순, 1998).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개념을 부부관계에 적용하여 정신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애착이 안정유형보다 불안정유형이 많다는 점이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의 애착유형은 부부 간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김광은, 2005), 정신장애인의 부부만족도는 일반인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정신장애와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여성 환자의 결혼 불만족도가 높았고, 기분부전장애를 가진 남성환자의 결혼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Whisman, 1999). 주로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장애에서 결혼 갈등, 자녀문제와 관련된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장문선, 김영환, 2003; Cummings, Keller & Davies, 2005; Heene, Buysse & Van Oost, 2005), 공황장애환자는 부부갈등 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증상이 심각할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aurelle et al., 2005).

상기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인 애착유형 중 불안정 애착은 안정 애착에 비해 친밀한 관계 대상인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은 정상인보다 불안정애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의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란 다차원적인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만족을 하나의 차원으로만 연구하여 세부적이고 적용가능한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3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결혼만족도의 측면을 살펴보고 각 결혼만족의 7개영역에 영향을 주는 애착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

서울소재 G병원 정신과에 내원한 정신장애인 25명(우울증 9명, 불안장애 12명, 알콜의존 1명, 양극성장애 1명, 망상장애 1명, 정신분열증 1명)과 정상인 38명을 대상으로 애착과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혼만족도 가운데 자녀불만족척도와 자녀양육갈등척도는 자녀가 없는 정신장애인 1명을 제외한 정신장애인 24명과 정상인 38명으로 연

구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측면 중 SES( $\chi^2=38.30, df=3, p<.01$ )와 학력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chi^2=13.16, df=5, p=.02$ )(표 1 참조).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기술통계, t검증, 상관분석을 하였다.

도구

애착척도

애착유형에 대한 평가는 Collins와 Read(1990)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63)

		정신장애인	정상인	$\chi^2$
성 별	남	8(12.7%)	12(19.0%)	.001
	여	17(27.0%)	26(41.3%)	
	전 체	25(100%)	38(100%)	
S. E. S.	I	3(12%)	0(0%)	38.30***
	II	6(24%)	0(0%)	
	III	7(28%)	38(100%)	
	IV	9(36%)	0(0%)	
	전 체	25(100%)	38(100%)	
학 력	초 졸	1(4%)	0(0%)	13.16*
	중 졸	3(12%)	1(2.6%)	
	고 졸	14(56%)	12(31.6%)	
	대학중퇴	2(8%)	1(2.6%)	
	대 졸	4(16%)	22(57.9%)	
	대학원이상	1(4%)	2(5.3%)	
	전 체	25(100%)	38(100%)	
종 교	기독교	7(28%)	13(34.2%)	5.48
	천주교	3(12%)	7(18.4%)	
	불 교	4(16%)	6(15.8%)	
	무 교	6(24%)	11(28.9%)	
	기 타	5(20%)	1(2.6%)	
	전 체	25(100%)	38(100%)	

\*  $p<.05$  \*\*\*  $p<.001$

단위: 명, 모든 변인에서 사례수(%)

SES: I 상 II상중 III중하 IV하

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8문항으로 애착-의존, 애착-불안, 애착-친밀의 3가지 차원으로 질을 측정한다. 애착-의존척도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이용가능하고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애착-불안척도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다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애착-친밀척도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짐과 친밀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애착-의존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보다 일방향적인 믿음의 정도인 반면, 애착-친밀척도는 나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적 특징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이방향적인 성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김선희 등, 2001). 문항 중 애착의존은 1-6번 문항으로 2, 5, 6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애착친밀은 7-12번 문항으로 8, 9, 10, 12번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었다. 애착불안은 13-18번 문항으로 13, 14, 17번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다. 김선아 등(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의존은 .54, 불안은 .54, 친밀감은 .51이었다.

**결혼만족도**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번안하고 수정한 K-MS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는 총 1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척도는 검사의 타당도를 측정하며, 나머지 12개의 척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서 불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1개 척도와 결혼 생활 각 영역에서의 불만족을 측정하는 11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척도를 제외한 각 하위 척도 가운데 김민녀(2004), 정민철(2005)의 연구결과 일반인들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7개의 척도를 추출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척도가 측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비밀관성 반응척도(INC): 검사 작성시 응답자가 부주의하게 응답한 정도를 측정하며 9개의 하위척도에서 유사한 응답이 기대되는 20쌍의 문항을 뽑아 척도를 구성
2. 전반적 불만족척도(GDS): 이혼이나 별거 등 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기술한 22문항으로 구성
3.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척도(AFC): 배우자의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인 이해와 공감에 대해 기술한 13문항으로 구성
4.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 척도(PSC: 배우자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

표 2. 정신장애인의 추가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n=25)

	M	SD
발병 연령	37.28	12.89
병 지속기간(개월)	39.20	64.82
	유	무
외래치료경험	14(56%)	11(44%)
입원치료경험	4(16%)	21(84%)
가족력	3(12%)	22(88%)

한 의논여부,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여부를 기술하는 19문항으로 구성

5. 경제적 갈등척도(FIN):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걱정, 배우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

6. 성적 불만족척도(SEX): 성생활에 대한 만족, 성관계에 대한 배우자의 흥미, 성관계 중의 배우자의 감정표현을 기술하는 13문항으로 구성

7. 자녀 불만족척도(DSC): 자녀의 적응에 대한 염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족과 갈등을 기술하는 11문항으로 구성

8. 자녀양육 갈등척도(CCR):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감부족,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K-MSI 각 하위척도들(INC제외)의 내적 일치도 계수의 범위는

.71-.92였으며 평균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이었다.

### 결 과

#### 애착변인들과 결혼불만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상인 군에서의 여러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정상인의 애착변인들과 결혼불만족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존애착은 결혼불만족 변인과 상관이 없었으나, 친밀애착은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경제적 갈등, 성적불만족, 자녀양육갈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친밀애착이 부부만족도의 하위개념과 상관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불안애착은 전반적 불만족, 자녀불만족, 자녀양육갈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애착변인과 결혼불만족

표 3. 정상인의 성별, 연령, 애착변인, 결혼불만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38)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 별	-											
2 연 령	.15	-										
3 애착의존	.30	-.03	-									
4 애착친밀	.05	.07	.22	-								
5 애착불안	.06	.22	-.37*	-.31	-							
6 전반적 불만족	-.02	.02	-.23	-.56**	.33*	-						
7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09	.18	-.20	-.54**	.31	.82**	-					
8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07	-.10	-.19	-.44**	.28	.72**	.68**	-				
9 경제적 갈등	-.06	-.17	-.16	-.63**	.14	.63**	.45**	.49**	-			
10 성적 불만족	-.24	.18	-.21	-.45**	.09	.59**	.61**	.35*	.22	-		
11 자녀 불만족	.15	.09	-.02	-.20	.36*	.29	.31	.21	.28	.11	-	
12 자녀 양육 갈등	.19	.17	.04	-.40*	.43**	.41**	.48**	.33*	.40*	.18	.52**	-

\* $p < .05$ , \*\* $p < .01$  (양방향)

변인과의 관계의 경우(표 4), 의존애착은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애착도 결혼불만족 변인과 상관이 없었다. 친밀애착에서는 전반적 불만족과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인과 다르게 애착과 결혼만족도의 상관이 대체로 미약한 편이었다.

**정신장애인의 애착**

정신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 애착-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0, df=61, p<.05$ ). 애착-의존( $t=.54, df=42.47, p=.58$ ), 애착-친밀( $t=.70, df=50.99, p=.48$ )수준은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인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5).

표 4. 정신장애인의 성별, 연령, 애착변인, 결혼불만족 변인 간의 상관관계(N=25)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 별	-											
2 연 령	.19	-										
3 애착의존	.02	-.12	-									
4 애착친밀	-.05	.11	.45*	-								
5 애착불안	-.25	-.08	-.39	-.48*	-							
6 전반적 불만족	.36	-.07	-.34	-.39*	-.07	-						
7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37	.19	-.12	-.34	-.19	.79**	-					
8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20	.04	-.28	-.34	-.13	.88**	.72**	-				
9 경제적 갈등	.10	.20	-.27	-.27	-.10	.70**	.68**	.67**	-			
10 성적 불만족	.15	.14	-.07	.05	-.19	.46*	.58**	.35	.30	-		
11 자녀 불만족	.02	.14	-.16	-.13	.19	.28	.41*	.39	.23	.25	-	
12 자녀 양육 갈등	-.08	.04	-.27	-.26	-.10	.63**	.71**	.73**	.62**	.46*	.51*	-

자녀불만족척도와 자녀양육갈등척도에서는 N=24

\* $p<.05$ , \*\* $p<.01$  (양방향)

표 5. 정상인과 정신장애인의 애착과 결혼만족도 차이검증

	장애유무(N=63)				장애유무(N=63)		
	정상인(N=25)	정신장애인(N=38)	t		정상인(N=25)	정신장애인(N=38)	t
애착 의존	17.60	18.08	-.57	자녀양육갈등	55.38	47.76	2.83**
애착 친밀	20.24	20.82	-.70	경제적 갈등	54.20	50.45	1.29
애착 불안	17.64	15.84	2.10*	성적 불만족	56.76	48.74	3.11**
전반적불만족	56.76	48.50	3.12**	자녀 불만족	50.88	48.08	1.16
정서적 의사소통불만족	52.68	48.66	1.39	문제해결 의사소통불만족	53.12	46.95	2.18*

단,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 척도는 장애유무(N=62), 정상인(N=24), 정신장애인(N=38)

\* $p<.05$  \*\* $p<.01$

정신장애인의 결혼만족도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인의 전반적 불만족 ( $t=3.12, df=61, p<.01$ ), 문제해결 의사소통불만족 ( $t=2.18, df=61, p<.05$ ), 성적불만족( $t=3.11, df=61, p<.01$ ), 자녀양육갈등척도( $t=2.83, df=60, p<.01$ )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의사소통불만족( $t=1.39, df=49.55, p=.17$ ), 경제적 갈등( $t=1.29, df=44.80, p=.20$ ) 및 자녀 불만족 ( $t=1.16, df=60, p=.24$ )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불만족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애착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상인의 애착 유형과 비교하여 결혼만족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결혼 만족도를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세분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만족 변인들과 애착변인들 간의 상관연구 결과, 정상인의 경우 친밀 애착요인이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불만족, 경제적 갈등, 성적불만족, 자녀양육 갈등과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친밀 애착이 성인 부부만족에 가장 관련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Timmerman (1991)은 친밀감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첫째, 친밀감은 성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다. 둘째, 친밀감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관계성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기여한다. 셋째, 결혼한 부부에서 친밀감의 부재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 장애의 발병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밀감 발달의 실패는 심리치료를 받는 외래환자의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다섯째, 친밀감이란 서로 상대방의 생각과 기분에 대한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게 하여 정서적인 친밀감과 신뢰성을 가지게 하는 관계성의 질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Timmerman(1991)의 다섯 번째 개념과 유사하게 친밀 애착이 정서적 및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불만족과 부적상관을 보여 친밀 애착 성향자 일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에서 불만족이 적게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 및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이 친밀애착요인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나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친밀감이 문제해결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Metz와 Epstein(2002)이 성적, 정서적 친밀감이 갈등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Kirby, Baucom 및 Peterman(2005)이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높은 친밀감을 예측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상인에서 불안애착요인이 전반적 불만족, 자녀불만족, 자녀 양육갈등과 상관이 나타났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모든 성인 애착의 공통요인으로 불안 애착을 설정하였듯이, 전반적으로 불안 애착요인이 대인관계에서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유대관계에서도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Ciechanowski, Sullivan, Jensen, Romano와 Summers(2003)는 애착 유형이 정서적인 적응과 만성적인 고통을 가진 환자의 치료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로서 나타난 결혼만족에 대한 애착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결혼불만족영역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친밀애착에서 전반적인 결혼불만족과 부적상관을 보여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친밀애착과 결혼만족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이 정상인보다 친밀 애착 성향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불만족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인과 달리 친밀 애착과 다양한 결혼영역과의 관련성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지는 애착 척도에서 방어를 하거나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성향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애착과 관련된 질문에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이외에도 특정 정신 장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정신장애를 정신장애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함한 것에 의해 여러 혼입 변인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 본 연구의 제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과 정상인 간의 애착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 불안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애착, 의존애착 수준보다 불안애착수준이 정신장애의 유무와 관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불안애착수준이 정신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Whisman, 1999; 장문선, 김영환, 2003; 이훈진, 2004; Troisi et al., 2005; Marcaurelle, 2005), 정신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불안정 애착으로 설명한 기존의 입장과 유사하였다. Bifulco, Moran, Ball과 Lillie(2002)는 불안애착과 유사한 두려움애착이 우울증에 취약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하는 등 불안애착수준이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하여, 불안애착과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애착 유형의 변화가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Naaman, Pappas, Makinen, Zuccarini & Johnson-Douglas, 2005) 치료 효과의 고양을 위해 애착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에 연구된 정신장애와 애착유형 간의 연구를 신경증 집단과 정신증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경증 집단의 애착 유형이 의존 및 친밀애착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불안애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용희, 2006; 이훈진, 2002; Troisi et al., 2005). 이러한 양상은 정신증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존애착과 친밀애착수준이 낮고 불안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나 신경증과 정신증 집단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훈진, 2002, 2004; Zechowski et al., 2004). 이러한 결과는 김광은(2004)의 연구에서 안정애착유형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문제 중심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불안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에 비해 자신감이 낮고 사회성이 떨어졌

으며 신경증적 성향이나 정신장애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불안애착수준이 신경증과 정신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수가 적은 제한점으로 인해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연구하지 못하였으나 애착유형과 장애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애착유형을 통해 정신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적응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결혼 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결혼만족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든 영역에서 정상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결혼관련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정서적 의사소통불만족, 경제적 갈등 및 자녀 불만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불만족이 높았다. 이는 Merikangas, Prusoff, Kupfer와 Frank(1985)가 우울한 부부의 결혼생활은 정상인보다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결혼 불만족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Whisman, 1999; 장문선, 김영환, 2003; Cummings, Keller & Davies, 2005; Marcaurelle et al., 2005). 이외에도, Ben-ari, Lavee(2005)는 결혼생활의 만족도에서 애착의 유형과 신경증 유무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애착유형과 정신장애가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해결-의사소통불만족과 관련하여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인이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조유리, 김경신, 2000; 조혜연, 2003), 안정애착이 원

활한 의사소통을 예측하는 변인(Kobak & Hazan, 1991)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안정 애착비율이 떨어지는 점으로 보아, 문제해결의 어려움과 애착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적불만족도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정상인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조혜연, 2003), 성적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서(Greeff & Malherbe, 2001), 성적 만족이 결혼 만족에 중요한 변인으로 상정된 점으로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정신장애인의 성적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결혼만족도의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 친밀감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치료적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조혜연(2003)은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대상자의 결혼 비율이 낮은 편이고 실제로 기혼 정신장애인들의 결혼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보고하지만, 결혼생활의 적응과 유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의 개발이 부족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러 영역에 걸쳐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주로 정상인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정신장애인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정신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여 애착유형과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연

구의 제약은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선표집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례수도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애착관계가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없어 부부를 모두 연구하지 못하였다. 비록 정신장애인에서 애착의 효과가 정상인에 비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영향이 적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후속하여 애착변인을 상담과 심리치료에 체계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작은 의미를 둘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은 (2004). 성인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광은 (200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민녀 (2004).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김용희 (2006).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 변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25-36.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서미경 (1999). 정신장애인 가족의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1999. 4, 217-239.
- 유명이 (2005). 정신장애인의 결혼유지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437-443.
-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 (1999).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43-54.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91-807.
- 이훈진 (2004).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381-395.
- 장문선, 김영환 (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 전효정 (1996). 갈등해소방법과 결혼적응도: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 정민철 (2005). 성역할유형과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K-MSI(결혼만족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 김정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조혜연 (2003).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희경 (1998).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및 결혼만족도의 상관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Babara. & Glen. (1997). Adult attachment styl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835-844.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en-Ari. A. & Lavee. Y. (2005). Dyad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ttributes: attachment, neuroticism, and their relation to marital quality and closen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4). 621-631.
- Berman. W.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post-divorce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96-503.
- Berman, W. & Sperling, M.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B. Sperling & W.H.Berman(Eds.), *Attachment in adult*(pp.3-2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sharat. (2003). Relation of attachment stype with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 Reports*: 92(3 Pt 2), 1135-1140.
- Bifulco, Moran, Ball & Lillie. (2002). Adult attachment style II: Its relationship to psychosocial depressive-vulnerabilit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2), 60-6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A., Clark, C.L, & Shaver, P.R. (1998). Self-report measuremnet of adult attachment. In A.Simpson & W.A. Ro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46-76). NY:Guilford Press.
- Brown. L.S. & Wright.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rategies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6(4), 351-367.
- Calabrese. M. L, Farber. B. A & Westen. D.(2005). The relationship of adult attachment constructs to object relational patterns of representing self and oth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and Dynamic Psychiatry*: 33(3), 513-530.
- Ciechanowski. P., Sullivan. M., Jensen. M, Romano. J., & Summers. H. (2003).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style to depression catastrophizing and health care utiliza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Pain*: 104(3), 627-637.
- Co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ummings, Keller & Davies. (2005). Towards a family process model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exploring multiple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479-489.
- Dickstein, Seifer, Albus & Magee. (2004). Attachment patterns across multiple family relationships in adulthood: associations with maternal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3), 735-751.
- Feeney, J.A. (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Cassidy & P.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pp.355-37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eeney, J. A. (2002). Attachment, marital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diary study.

- Personal relationships*: 9, 39-55.
- Feen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and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128-154). New York: Guilford Press.
- Gehring D. (2003). Couple therapy for low sexual desire: a systemic approach.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9(1), 25-38.
- Greeff. AP. & Malherbe. HL. (2001).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pouse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7(3), 247-257.
- Heene. EL., Buysse. A. & Van Oost. P. (2005). Indirect pathway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the role of conflict communication, attributions, and attachment stype. *Family Process*: 44(4), 413-440.
- Kanemasa. Y. & Daibo. I. (2003). Early adult attachment stypes and social adjustment. *Shinrigaku kenkyu.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74(5), 466-473.
- Kirby. JS., Baucom. DH. & Peterman MA. (2005). An investigation of unmet intimacy needs in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4), 313-325.
- Kobak, R. & Hazan, C. (1991). Attachma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Meredith. PJ., Strong. J. & Feeney. JA. (2006). The relationship of adult attachment to emtion, catastrophizing, control, threshold and tolerance, in experimentally-induced pain. *Pain*: 120(1-2), 44-52.
- Marcaurelle, Belanger, Marchand, Katerelos & Mainguy. (2005). Marital predictors of symptom severity in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9(2), 211-232.
- Merikangas. KR., Prusoff. BA., Kupfer. DJ. & Frank. E. (1985). Marital adjustment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9(1), 5-11.
- Metz. ME. & Epstein. N. (2002). Assessing the role of relationship conflict in sexual dysfun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2), 139-164.
- Naaman, S, Pappas. J. D, Makinen. J, Zuccarini. D. & Johnson-Douglas. S. (2005). Treating attachment injured couples with emotopnally focused therapt: a case study approach. *Psychiatry*:68(1), 55-77.
- Parkes, C.M.(1972). *Bereave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atton. D. & Waring. EM. (1985). Sex and marital intimac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1(3), 176-184.
- Schmitt. DP. (2005). Links is short-term mating the maladaptive result of insecure attachment? A test of competing evolutionary perspec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6), 747-768.
- Schmidt. S., Nachtigall. C., Wuethrich-Martone. O., & Strauss. B. (2002). Attachment and coping with chronic diseas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3), 763-773.
- Senchak, M., & Leonard, K. E. (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51-64.

- Timmerman. GM. (1991). A concept analysis of intimacy.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2(1)*, 19-30.
- Troisi A, Massaroni P & Cuzzolaro M. (2005). Early separation anxiety and adult attachment style in women with eating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Mar;44(Pt1)*, 89-97
- Weimer. BL., Kerns. KA. & Pidenburg. CM. (2004). Adolescents' interactions with a best friend: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styl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8(1)*, 102-120.
- Whisman (1999). Marital dissatisfaction and psychiatric disorder: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701-706.
- Zechowski .C, Bazynska K, Namyslowska I, Bronowska Z, Siewierska A, Jakubczyk A. (2004).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f hospitalized adolescent patients-pilot study. *Psychiatria Polska: 38(5)*, 933-945.

논문접수일: 2006년 3월 31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12일

게재결정일: 2006년 10월 21일

#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Psychiatric Patient

Min Chul Ju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Yong Hee Kim

Kwangju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examined the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wenty-five psychiatric patients(depression 9, anxiety disorder 12, alcohol dependency 1, bipolar disorder 1, delusional disorder 1, schizophrenia 1) and thirty-eight normal subjects. As a result, normal person's attachment-intimacy degree related Global Distress(GDS), Affective Communication(AFC),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PSC), Disagreement About Finances(FIN), Sexual Dissatisfaction(SEX), Conflict Over Child Rearing(CCR). And normal person's attachment-anxiety related Global Distress(GDS),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DSC), Conflict Over Child Rearing(CCR). psychiatric patients' attachment-intimacy degree was related Global Distress(GDS). With afterwords it is same From the comparis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normal person and the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ic patients' attachment-anxiety degre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person. Normal persons' attachment-dependancy and attachment-intimacy degree was more elevated than psychiatric patients. However, even not significant. Marital satisfaction in psychiatric disorder is following. The dissatisfaction of psychiatric pati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person in Global Distress(GD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PSC), Sexual Dissatisfaction(SEX), and Conflict Over Child Rearing(CCR). The dissatisfaction of psychiatric patient was higher normal person in Affective Communication(AFC), Disagreement About Finances(FIN), and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DSC).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ttachment-intimacy" is closely related to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It was studied marrital satisfaction with single dimension

until recently. However, this study was evaluated multiple dimension. And it probably means what kind of attachment factor gives an effect it researched. Therefore, When applying a research result in the next couple treatment, each dimension it fractionates a especially couple problem and approaches.

*Keywords : attachment, marital satisfaction*